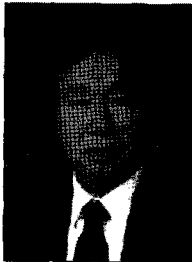


낙농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실현방안



박종수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2007년 5월 체결협상을 시작한 한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2010년 10월 6일에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한-EU FTA는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2011년 7월 1일에 잠정 발효된다. EU의 27개 회원국은 모두가 하나같이 낙농산업의 강국이며,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될 경우 국내 낙농산업에 큰 충격을 안겨줄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국내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EU FTA가 발효되어 EU산 유제품이 관세철폐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국내 낙농업 생산액이 연간 약 400억원~1,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미 타결된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호주와 캐나다 등과의 FTA가 타결되어 발효되는 경우 우리 낙농산업에 미치게 될 후유증은 불을 보듯 심각할 것이 분명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낙농업의 생산성향상과 비용절감을 통해 이 같은 FTA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낙농업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나가기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간척지 등에 낙농단지를 조성·운영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간척지 등에 낙농단지를 조성하여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꾸준히 잠식되고 있는 목장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목장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통해 낙농업의 획기적인 비용절감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이러한 낙농단지 조성계획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만한 발상이며, 이는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목장의 입지난 해소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국내산 원유의 품질 및 안전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지속 가능한 한국형 낙농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이 같은 낙농단지의 조성이 왜 필요하며, 낙농단지를 조성·운영하는 데 있어서 추구해야할 방향, 그리고 낙농단지를 조성·운영하는 데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성공적인 단지조성을 위해 실현해야할 방안 등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1. 단지 조성이 왜 필요한가.

첫째,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잠식되고 있는 목장의 입지난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낙농의 입지는 당초 소비지 지향적인 지역 즉,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위치하여 발전해 왔다. <표 1>은 지난 1986년 이후 전국의 각 도별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수와 농가점유율의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표 1>에서 살펴보면 전국의 낙농가수는 1986년에 42,728호에 달했으나, 1995년에는 23,519호, 2005년에는 8,923호 그리고 2009년에는 1986년의 15% 정도에 불과한 6,767호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감소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감소속도가 대도시(서울과 부산)가 속해있는 경기와 경남지역은 매우 큰 반면에 국토의 중심지인 충남과 경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낙농가에 대해 해당지역의 농가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와 경남은 감소한 반면에 충남과 경북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체 농가중에서 경기도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 50.8%에서 1995년 44.5%, 그리고 2009년 40.7%로 낮아지고 있으나, 충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기 동년도 13.4%에서 16.4%, 그리고 19.8%로 증가하고 있다.

<표 1> 도별 젖소사육 농가수 및 점유율 추이

단위 : 호, %

구 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6										
농가수(A)	42,728	21,703	1,538	2,193	5,712	2,102	2,631	2,803	3,906	140
점유율	100.0	50.8	3.6	5.1	13.4	4.9	6.2	6.6	9.1	0.3
1995										
농가수(B)	23,519	10,468	1,169	1,248	3,856	1,240	1,322	2,270	1,839	107
점유율	100.0	44.5	5.0	5.3	16.4	5.3	5.6	9.7	7.8	0.5
2005										
농가수(c)	8,923	3,655	377	520	1,418	598	621	1,048	624	62
점유율	100.0	41.0	4.2	5.8	15.9	6.7	7.0	11.7	7.0	0.7
2009										
농가수(D)	6,767	2,757	257	393	1,340	420	418	687	445	50
점유율	100.0	40.7	3.8	5.8	19.8	6.2	6.2	10.2	6.6	0.7
D/C	75.8	75.4	68.2	75.6	94.5	70.2	67.3	65.6	71.3	80.6
D/B	28.8	26.3	22.0	31.5	34.8	33.9	31.6	30.3	24.2	46.7
D/A	15.8	12.7	16.7	17.9	23.5	20.0	15.9	24.5	11.4	35.7

주) : 특별시 및 광역시 등은 해당 소재의 도에 포함됨.
 자료 : 농식품부, 낙농진흥회, "낙농통계 연감", 각 연도

한편 <표 2>는 각 도별 젓소의 호당 평균 사육두수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2>를 통해 젓소의 사육규모를 살펴보면, 경기와 충청북 등 중부지역보다는 조사료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전남·북과 경남 및 제주지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09년 현재 젓소의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제주와 전북, 전남이 각각 94.0두와 79.4두, 74.8두로서 전국 평균 호당 사육두수 65.7두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와 충북 및 충남은 각각 64.5두 및 59.5두, 62.5두로 전국 평균두수를 하회하고 있다.

이 같은 젓소사육의 입지환경 변화는 대도시 지역의 젓소목장이 해당 지역의 도시화·산업화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수용농가들이 더 이상 목장용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목장경영을 포기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규모확대를 희망하는 농가라 할지라도 지가의 상승과 부지난, 약취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목장부지를 원활히 확보하지 못한데서 기인된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국토의 도시화·산업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잠식 및 위축되는 목장의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 등이 낙농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2> 도별 호당 평균 젓소사육두수 추이

단위: 두, 배

구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6(A)	10.2	10.8	10.3	7.8	9.6	8.8	9.4	11.0	10.1	11.5
1995(B)	23.5	23.0	22.5	21.8	21.9	27.7	27.2	24.9	23.7	39.9
2005(C)	53.7	52.2	50.2	48.5	54.8	61.4	60.0	49.5	55.8	85.7
2009(D)	65.7	64.5	68.0	59.5	62.5	79.4	74.8	61.4	69.1	94.0
D/C	1.2	1.2	1.4	1.2	1.1	1.3	1.2	1.2	1.2	1.1
D/B	2.8	2.8	3.0	2.7	2.9	2.9	3.5	2.5	2.9	2.4
D/A	6.4	6.0	6.6	7.6	6.5	9.0	8.0	5.6	6.8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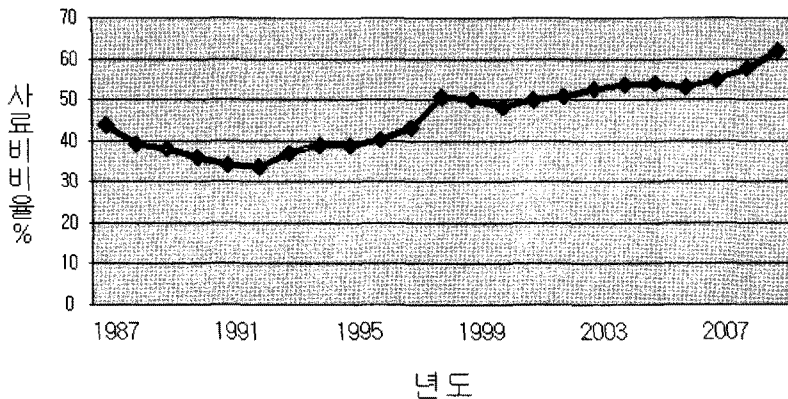
주) : 특별시 및 광역시 등은 해당 소재의 도에 포함됨.
 자료 : 농식품부, 낙농진흥회, "낙농통계 연감", 각 연도

둘째, 낙농단지를 통해 자연순환형 녹색목장경영 및 지속가능한 낙농경영시스템을 선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 낙농업이 성장해오면서 지금까지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원유의 생산비절감과 분뇨처리의 문제이다.

1986년 젓소의 두당 산유량은 4,882kg에서 2009년 8,914kg으로 지난 20여 년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낙농선진국 수준에 달했으나, 젓소의 두당 사육관리비

와 우유의 단위당 생산비는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상승됨으로써 일본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젖소의 두당 사육비는 1986년 1,773천원에서 2009년 5,486천원으로 3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 같은 사육관리비용의 주요 상승요인은 사료비 증가와 더불어 농후사료 과다 급여에 의한 젖소의 생산수명 단축 등에 기인된 바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1>은 1986년 이후 2009년까지 젖소의 사육관리비 가운데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젖소의 사료비를 절감하고 생산수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값싼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조사료의 급여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은 기존의 한정된 목장규모와 토지면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림 1〉 젖소사육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추이

따라서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낙농단지의 조성이 필연적 과제이다. 단지 내에 공동 조사료포와 분뇨처리장을 조성 및 설치·운영함으로써 원유의 생산비절감은 물론 축산과 경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자연순환형 농업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낙농단지가 자연순환형 녹색목장경영 및 지속가능한 낙농경영 체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순환형 녹색목장경영은 또한 가격경쟁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국내산 원유의 품질 및 안전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셋째, 단지 내 착유우의 위탁사육시스템을 통해 낙농업의 위축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내에서 생산자단체 등이 위탁목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목장이주가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목장조성이 불가능하거나 고령화로 인해 목장경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농가가 자기농장에서 사육하던 젖소를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낙농업의 절대적인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위탁 목장에 일반 투자자에 대한 착유우 위탁사육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함으로써 일반 투자자의 낙농업에 대한 관심제고와 투자자들의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우수소비촉진의 새로운 원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FTA시대에 대응해서 국내 낙농업의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개방화 정책기조에 따라 한·EU FTA가 내년 7월에 발효예정이고 한·미 FTA 또한 국회의 비준만을 남겨둔 채, 호주와 캐나다 또 다른 낙농선진국들과의 FTA가 추진되고 있다. 이들 낙농선진국들과의 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 낙농업의 타격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응해서 국내 낙농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 같은 변화의 핵심은 낙농경영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다. 그런데 낙농업은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작업과정 즉, 육성우관리, 질병관리, 사료재배 및 관리, 청소관리, 착유관리 등 모든 작업을 목장주 및 가족노동력을 포함한 상고(常雇)노동에 의해 직접 해결함으로써 목장경영의 노동생산성이 낮고 규모확대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낙농경영체제로 인해 낙농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장경영의 철저한 사회적 분업화와 전문화가 요구되며, 단지조성을 통해 단지 내에서 이 같은 목장경영의 전문화·분업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목장경영개선의 획기적인 변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2. 단지조성의 주체와 조성규모는?

단지에 입주한 단체나 개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운영해야 하는 도로와 공동 분뇨처리시설, TMR공장 등 목장경영과 직접 관련된 일련의 기초적인 기반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조성하여 입주가 결정된 단체나 개인에게 장기에 걸쳐 임대하는 형식의 분양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조성대상지가 대규모의 간척지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목장경영에 필요한 간접적인 기반시설 즉, 조사료포는 입주 낙농가들의 생산자 단체(협동조합 또는 조합법인)가 주도하여 조성토록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의 조성규모는 최소한 단지 내에서 발생한 분뇨를 단지 내의 사료포에 모두 환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 이용하는 부대시설 등이 충분히 건립될 수 있는 자연순환형 농업이 가능한 면적이어야 한다.

단지의 조성규모에 따라 입주 대상의 농가수와 경영규모 등을 차후에 제한하여 결정하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요구하는 경영규모 등을 미리 파악 하여 거기에 합당한 최소의 단지규모를 확보하되, 가급적 단지 조성 후 수년 후에도 도시화·산업화에 의해 이전해야할 일정 면적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3. 단지운영의 기본방향은?

낙농단지가 조성되어 성공적으로 운영·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입주대상 목장을 반드시 가족적 전업농가로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부자(父子)공동경영 등 가족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목장은 그에 상응하여 더욱 큰 규모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가 낙농경영의 외부화 시스템(outsourcing system)을 구축하는 일이다. 즉, 단지 내에서 목장의 경영과 일반적인 관리는 가족노동으로 이루어지, 특정 관리분야(육성우 관리, 질병관리, 사료관리, 청소관리, 착유우의 번식관리 등)는 전문업체나 단체에 위탁하는 즉, 경영의 다양한 외부화를 통한 분업화 방안을 반드시 강구토록 해야 한다. 정부와 협동조합은 낙농경영의 분업화를 위한 전문 용역업체나 단체 등을 지원·육성하는 등 낙농경영의 외부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둘째, 가족분뇨의 공동처리, 조사료의 공동생산을 통해 단지 내에서 완전한 자연순환형 농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단지 내에서 발생된 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비료자원으로 활용하되, 단지내에서 생산된 축분비료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조사료포를 확보함으로써 완전한 순환농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료포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이용하여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TMR공장도 운영해야 한다.

셋째, 단지 내에서 생산한 원유를 가공·처리할 수 있는 목장형 유가공장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원유의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하여 원유의 부가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목장형 유가공장과 연계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목장과 관광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우수소비확대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물복지를 고려한 일정 면적의 착유우 운동장이나, 방목장 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최근 개방화 추세에 편승하여 낙농선진국들은 자국 유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수입국 소비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경쟁력 우위의 일환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력 이외에 안전경쟁력과 동물복지까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유생산의 안전성을 확보와 더불어 동물복지의 문제가 점차 강조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섯째, 착유우사를 포함한 목장시설은 정부가 표준 설계를 작성하고 입주농가는 표준설계에 따라 건립토록 해야 한다.

제한된 노동력 범위에서 사육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의 생력화(省力化)를 위한 목장시설의 근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다만 근대화된 축사신축으로 인해 개별 농가의 비용부담이 클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시설자금에 대한 장기 저리융자가 병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섯째, 낙농단지와 연계되는 육성우 전문목장을 운영해야 한다.

낙농경영의 규모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한 생산비절감, 젖소의 생산수명 연장, 불필요한 암소 육성우의 비육전환 등을 위해서는 낙농단지 내에 육성우 전문목장이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 육성우 목장은 생산자단체가 주도하여 위탁경영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철저한 공동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젖소의 집단사육과 농가간 다양한 형태의 상호 교류가 불가피한 낙농단지의 특성상 낙농단지가 갖는 최대의 취약점은 전염성 질병발생에 따른 대규모 피해의 위험성이다. 단지 내 구제역 등 전염성 질병이 발생할 시에는 대규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전염성 질병에 대

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4. 단지의 운영주체는?

착유우단지는 입주한 개별 목장단위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육성우 목장, 조사료포, 유가공공장, TMR공장, 위탁관리목장 등 공동 운영이 불가피한 분야는 생산자단체(낙농협동조합 또는 조합법인 등)가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질병관리, 청소관리 등 숙련된 노동력지원은 전문 업체 또는 단체가 운영토록 하되, 정부와 생산자 단체는 단지에 입주한 낙농가는 물론 여타 전국의 낙농가에게 낙농경영의 분업화를 위한 전문 용역과 기술,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용역업체를 지원·육성하여 국내의 모든 낙농가가 낙농경영의 점진적인 분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낙농경영의 분업화를 위한 전문 용역이나 컨설팅 사업을 생산자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5. 단지의 운용방법은?

조성된 단지의 운용은 20~30년의 장기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임대기간의 연장은 본인 또는 상속후계자와 공동 경영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해야 한다. 단지의 임대료는 단지 밖 인근 지역에서 낙농업을 영위하는 일반 낙농가의 해당 단위면적 규모의 지대(地代)수익 수준에서 정하되, 원유의 생산비에 부담이 되지 않은 최소비용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지 내에서 생산된 조사료의 공급과 분뇨처리장 운영비용 등은 착유우(또는 가축단위)의 사육규모에 비례하여 책정해야 한다.

6. 예상되는 문제와 대책은?

대규모 목장이 집단적으로 입주하게 되는 낙농단지는 생산성향상과 생산비 절감 등 다양한 이점이 존재하지만, 집단화에 의한 문제점도 없지 않은바,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제역 등 전염성 질병 발생시 대규모 피해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단지 내의 어느 한 농가에서 악성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단지 내의 모든 가축을 일거에 살처분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위험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공동방역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고정투자 증가에 대한 농가의 부담과중이다.

단지 안에는 현대화된 축사 건축과 설비 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많은 자금은 농가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축사와 공동이용 시설과 장비 등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장기저리 융자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농가 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의 우려가 상존한다.

공동시설의 이용과 비용분담 등과 관련하여 이해타산에 따른 입주 낙농가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물론 이해 당사자 상호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합리적인 계약 및 운영관리 규정 등이 제정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넷째, 주변 지역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젖소의 사육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악취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간척지 등의 개발 주체(농진공 등)와 단지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단지조성 및 입주에 대한 저항이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정부나 생산자단체는 단지 내 악취관리 등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 매뉴얼을 연구·작성하여 단지의 모든 입주자가 목장의 위생 및 악취 등의 관리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숙지·시행토록하고, 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해야한다.

7. 기대효과는?

낙농단지를 조성·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앞에서 열거된 문제점들이 발생할 우려도 있지만, 단지의 조성과 운영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더욱 큰 의미를 갖는바, 그 기대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날로 축소되어가는 목장의 입지난을 해소하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단지에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수용되는 목장에 대해 우선 입주를 보장해 줌으로써 도시근교 낙농가라 할지라도 경영능력이 우수한 낙농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위탁경영목장의 운영을 통해 낙농업의 절대적인 위축방지와 일반투자자의 투자유치를 통해 우유의 소비촉진과 낙농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한국적 낙농경영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자연순환형 목장경영의 실현, 조사료의 자급, 육성우전문목장의 설치·운영, 착유목장의 작업관리 등에 대한 목장경영의 분업화를 통해 대규모의 가족적 전업농을 육성함으로써 FTA시대에 대응하여 생산성향상과 생산비 및 집유비용의 절감은 물론 지속가능한 한국형 친환경 낙농경영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낙농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소비자 밀착형 낙농산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친환경 목장 경영, 목장형 유가공공장 운영 등과 연계하여 소비자 체험관광 코스를 개발·운영하는 등을 통해 우수소비홍보확대의 장을 제공하고 낙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HACCP 및 EACCP을 적용하는 목장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모든 입주 목장에 농가단위의 HACCP(Hazard Analysis on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철저히 적용토록 하여 원유의 위생적인 품질을 극대화라고, 원유의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영요소별 경제적 취약점을 철저히 분석·제거·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젖소관리의 기준이 되는 EACCP(Economic Anaysis on Critical Control Point, 경제요소 중점관리기준)을 개발하여 각 목장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유생산이 가능토록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HACCP 및 EACCP을 적용하는 목장의 실증적인 수익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같은 개념을 국내 모든 농가가 점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8. 맺는말

필자는 이상에서 낙농단지가 왜 필요하며, 단지를 조성·운영하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아니 될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과 단지의 조성·운영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예상되는 기대 효과 등을 개략적으로 제안하였는바, 이는 그간 필자가 심층적으로 연구한 연구결과라기 보다는 평소의 생각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낙농단지의 조성과 운영은 궁극적으로 한국 낙농업이 FTA 시대에도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한국형 낙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